



순천 출신 이정은 “프로에서 우승하고 싶어요”



개인전 이어 김아인·정주원과 한팀 단체전도 우승 “세미 프로테스트 통과...내년 KLPGA 출전 목표”

골프

순천출신의 ‘새내기 골퍼’ 이정은(19·한국체대·사진)이 마지막 아마추어 무대를 2관왕으로 장식했다.

이정은은 지난 11일 나주 골드레이크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여자 골프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포함 2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의 성적을 낸 이정은은 일본의 가나자와 시나를 4타차로 따돌리며 개인전 우승자가 됐다. 김아인(21·한국체대), 정주원(19·동아대)과 팀을 이룬 여자 단체전에서도 4라운드 합계 567타를 기록, 576타의 일본을 따돌리고 2관왕을 차지했다.

이정은은 “우승을 목표로 했지만 부담이 많았다. 한시름 놓았다. 두 개의 산 중 하나를 넘은 기분이다”

며 “첫날은 샷이 잘 안됐는데 둘째 날 샷이 잘 떨어졌고 흐름이 좋았다. 익숙한 코스라서 편하게 경기를 했다. (라이벌로 꼽히는) 일본에 지기 싫은 마음이었는데 태극기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감격스러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두 개의 산 중 하나를 넘었다는 이정은. 그에게 남은 산은 세미 프로 테스트다.

이정은은 13일 강원도로 이동해서 세미 프로 테스트를 치른다. 이번 U대회는 이정은에게 아마추어 마지막 무대인 셈이다.

이정은은 “아마추어로서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니 괜히 겁났다.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을 남기고 싶었는데 경기에 대한 중압감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세미 테스트 통과해서 3부 투어에서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으로 상위 랭킹에 들겠다. 11월

시드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서 내년엔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뛰고 싶다.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꿈을 위해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이정은은 노심초사 외동딸을 지켜보시던 부모님을 활짝 웃게 해드려서 더욱 행복하다.

아버지 이정호(52)씨는 서른일곱의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하면서 허반신이 마비됐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외동딸을 살뜰하게 챙길 여력이 없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시작했던 골프를 한 때 그만 두었던 이정은은 3중매 채를 다시 잡았다. 골프 용 비웃어 없어서 홀로 흠뻑 젖어 경기를 하기도 했고, 여기저기에서 얻은 5개의 브랜드로 채운 13개의 클럽을 들고 필드에 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정은은 부모님 속 한 번 씩이지 않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정상에 올랐다. 에타게 이번 대회를 지켜보셨던 부모님을 활짝 웃게 한 효녀 이정은. 그녀의 금메달이 더욱 빛나는 이유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육상 ‘한국신’ 김국영 포상금 500만원 받아

남자 100m에서 10초16으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김국영(24·광주광역시청)이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포상금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대한육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연맹의 규정에 따라 김국영에게 한국신기록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육상연맹은 한국신기록을 세운 선수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김국영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김국영은 지난 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100m 준결승전에서 10초16을 기록해 2010년 6월 7일 전국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10초23의 한국 기록을 5년 만에 바꿔냈다.

김국영은 특별 포상금 1억원을 받은 적이 있다. 2010년 10월 전국 육상선수권에서 10초31, 10초23으로 한국 기록을 연거푸 경신할 때다.

한국 남자 100m는 서말구가 1979년 멕시코에서 세운 기록 10초34를 30년 넘게 넘어서지 못한 상태였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은 ‘특별 포상금’ 1억원을 책정해 남자 100m 기록 경신을 유도했다.

한국 테니스 ‘대들보’ 정현 2관왕 ‘금자탑’

개인·단체전 최종 우승



“친구들과 맥주 한잔 하고 싶어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테니스 2관왕에 오른 한국 테니스의 ‘대들보’ 정현(19·상지대)의 꿈은 소박했다. 친구들과 맥주 한잔 하는 것이 성인 무대에 발을 내딛던 어린 선수의 소원이었다.

정현은 12일 영주전천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테니스 단식 결승에서 러시아의 아슬란 카라체프를 상대로 2-1(1-6 6-2 6-0) 역전승을 거뒀다.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에 올랐다.

정현은 전날 남지성과 출전한 남자복식 결승에서 영국에 1-2(6-2, 3-6, 8-10) 역전패를 당하면서 아쉽게 코트를 떠났었다. 그리고 단식 결승 첫 세트도 1-6으로 쉽게 내줬지만 2세트부터 정현은 다른 선수가 됐다. 부지런히 사이드라인을 공략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6-2로 2세트를 끝낸 뒤 마지막 6게임씩 싸움이하하면서 챔피언이 됐다.

웁블던이라는 첫 메이저 도전이 끝나자

마자 매일 같이 단식과 복식을 소화하라 지칠 대로 지친 정현이었다.

정현은 “기싸움에서 밀리면서 첫 세트를 쉽게 내줬지만 상대도 지친 모습을 보였고, 힘든 모습을 숨기려고 했다. 복식에서의 아쉬움을 이겨내고 홈에서 탄 금메달이 더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날 시상식에서 눈물까지 보였던 정현은 “아쉬운 것도 있지만 형이 너무 잘 해줬는데 나 때문에 진 것 같았다”며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지금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지금 못 버티면 나중에도 버티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결승을 치렀다”고 말했다.

또 “시합 다니면서 힘든 줄은 몰랐는데 성인 무대에서 투어를 다니다 보니까 힘들기도 했다. 맥주 한잔 하는 게 소원이었다. 1년 내내 시합을 다녀서 친구들과 맥주 마실 기회가 없다”고 수줍게 웃었다.

“맥주 한잔 하고 싶다”는 챔피언의 소박한 꿈. 당분간은 불가능한 꿈이다. 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데이비스컵 출전을 위해 13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다. 이후 미국으로 이동해 US오픈을 준비한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12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영주전천후테니스장에서 열린 광주U대회 테니스 남자단식 결승에서 정현이 백핸드로 볼을 넘기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기자 choi@

한나래·이소라 ‘24년만의 금빛다’

테니스 여자복식 우승

24년을 기다린 금메달이었다.

한나래(23·인천시청)와 이소라(21·NH농협)가 11일 영주전천후테니스장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테니스 여자 복식 결승에서 대만의 리아쉬안-쉬제어우(대만)를 2-0(6-4 6-6)으로 몰리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U대회 여자 테니스에서 금메달이 나온 것은 지난 1991년 영국 셰필드 대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정현(19·상지대)을 앞세운 남자 대표팀에 비해 여자 대표팀에 쏟아지는 관심은 덜했다. 사람들의 무관심속에서도 한나래와 이소라는 묵묵히 U대회 정상을 밟으며 24년 만에 여자 대표팀에 금메달을 안겨줬다.

한나래는 “24년 만의 금메달이라 뜻깊

다. 한국에서 대회를 하는 만큼 더 금메달을 따고 싶었는데 많은 응원속에서 잘 이겨냈다. 소리가 잘 들려줘서 오늘이 있었다”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이소라도 “한국에서 유대회가 열렸는데 기대한 것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다. 언니 따라서 잘 하라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사람은 “여자 테니스에 대한 기대가 적었다. 서운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만큼 메달을 따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더 단합을 해서 결과를 이뤄낸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2관왕 실패 이용대 “고향서 성적 못내 죄송”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삼성전기)와 고성현(김천시청)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회 연속 2관왕 달성에 실패했다. 이용대-고성현은 지난 11일 전남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배드민턴 개인전 남자복식 8강전에서 중국의 장원-왕이류에게 1-2(21-12 12-21 17-21)로 패하면서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첫 세트에서 13-5로 점수 차를 벌이며 기선을 제압했지만 2세트에서 잔 실수가 이어졌다. 3세트에서도 중국의 추격에 12-12 동점과 13-14 역전을 허용하면서 흔들렸다. 지난 8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2개 대회 연속 2개의 금메달에 도전했던 이용대의 꿈도 무산됐다.

이용대는 2013년 러시아 카잔 유니버시아드에서 단체전·남자복식 금메달을 가져가며 2관왕이 됐다.

이용대는 “고향 분들이 많이 응원 하 주셨는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